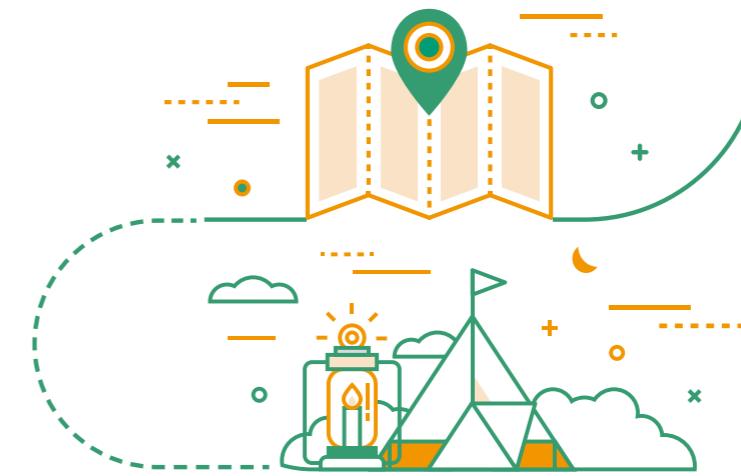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GIMHAE



최나리
문화관광복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양봉석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호텔관광경영과 교수

- I. 배경 및 분석개요
- II. 야간관광 실태 분석
- III. 김해시 야간관광 현황 및 문제 진단
- IV. 야간관광 활성화 기본 방향
- V.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 VI. 정책 제언 및 맺음말

I. 배경 및 분석개요

1. 배경 및 목적

- 김해시는 가야문화유산과 국제공항 인접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높은 방문객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관광 활동이 주간·당일 방문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체류와 소비로의 전환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최근 관광객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숙박률과 짧은 체류시간, 인접 대도시로의 관광소비 유출 등으로 관광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야간 시간대에 활용가능한 관광 콘텐츠와 상권, 체류 환경이 부족하여 방문객의 조기 이탈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숙박·외식·야간 소비로의 연결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방문객 수의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한 기존 관광 구조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며, 관광의 질적 전환과 체류 유도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본 연구는 김해시 관광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야간관광을 매개로 관광 구조를 체류형·고부가 가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분석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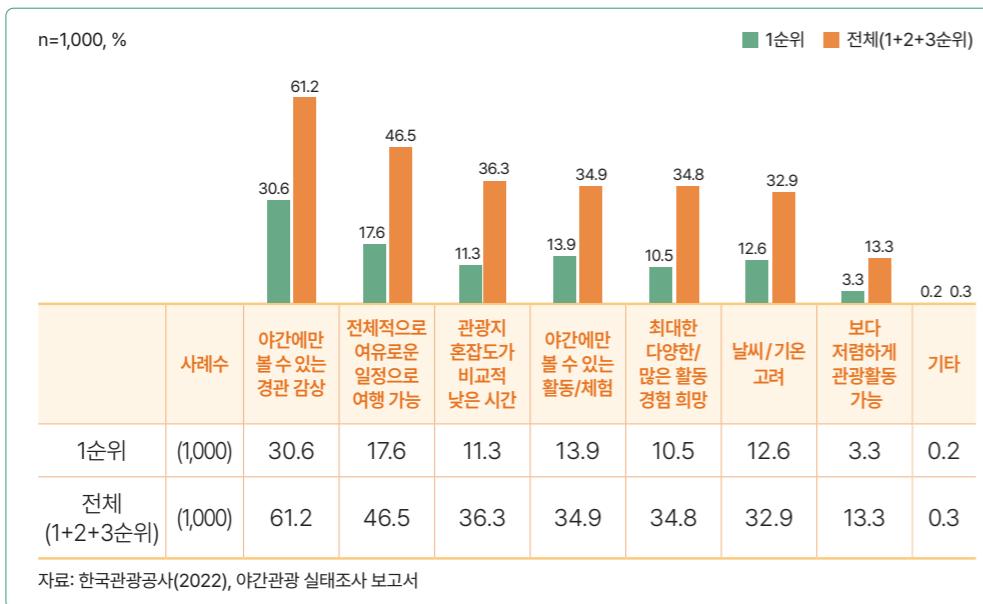
- **공간적 범위** 김해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2022년(야간관광 실태분석)
- 2025년(김해시 야간관광 현황 및 문제진단)
- **내용적 범위**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

II. 야간관광 실태 분석¹⁾

야간관광 선택 요인

- 야간관광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은 야간에만 감상할 수 있는 경관(30.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이어 전반적으로 여유로운 일정으로 여행 가능하다는 점(17.6%), 야간에만 참여 가능한 활동·체험(13.9%) 순으로 나타남. 이는 야간관광 수요가 단순한 시간대 분산 차원이 아니라, 주간 관광과 차별화된 경험 가치에 의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야간에만 가능한 요소'가 야간관광 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야간 개방 확대보다는 야간 경관 연출, 야간 전용 체험·프로그램, 시간대 특화 콘텐츠 등 차별화된 야간 특화 콘텐츠 발굴과 체계적 기획이 핵심 전략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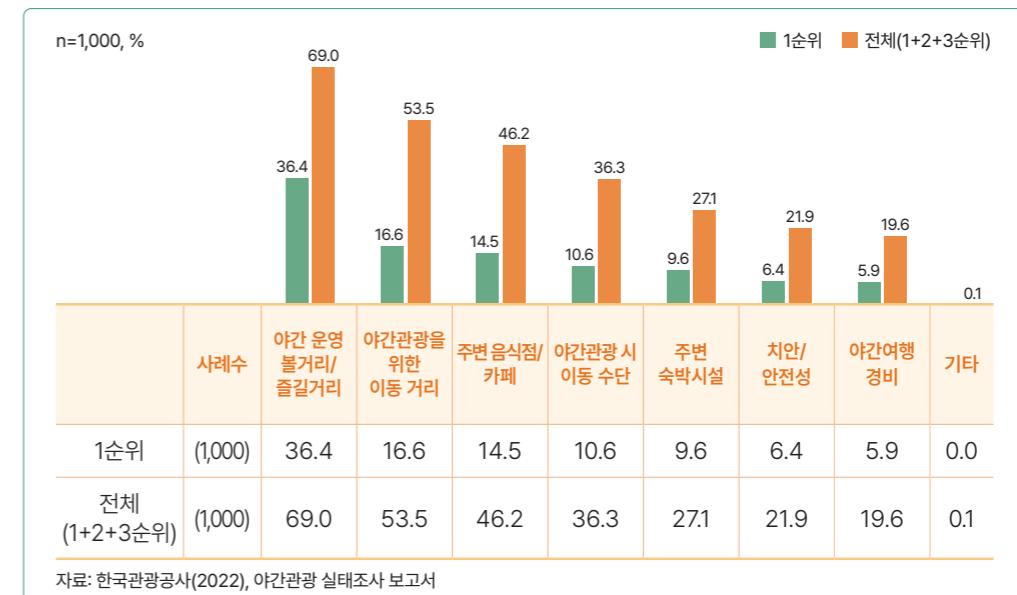
<그림1> 야간관광 결정 이유



야간관광 시 주요 고려사항

- 야간관광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야간 운영 볼거리·즐길거리의 존재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야간관광을 위한 이동거리(16.6%), 주변 음식점·카페 등 편의시설(14.5%) 순으로 확인됨. 이는 야간관광 수요가 단순한 이벤트 참여를 넘어, 이동·체험·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종합적 관광 환경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이동거리와 음식점·카페 항목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자체뿐만 아니라 야간 이동 부담을 최소화하는 공간적 집적 전략과 야간 시간대까지 영업이 가능한 식음·휴식 인프라 확충이 핵심 조건임을 시사함
- 이는 야간관광 정책이 단일 콘텐츠 개발을 넘어, 보행 동선, 야간 교통, 상권 연계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야간관광 환경 조성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함

<그림2> 야간관광 시 주요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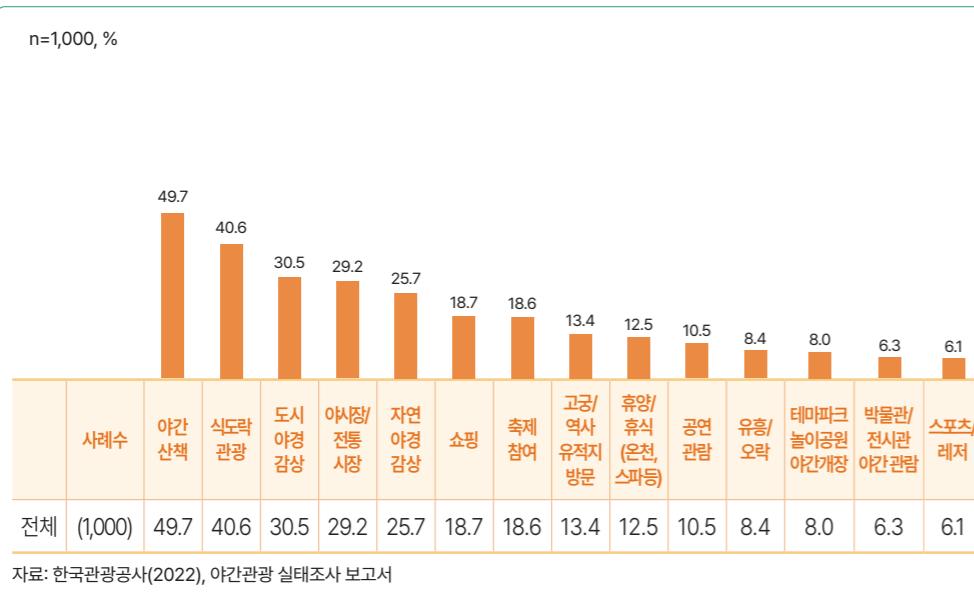


1) 한국관광공사(2022), 야간관광 실태조사 보고서

야간관광 시 주요 활동

- 야간관광 시 주요 활동은 야간 산책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식도락 관광(40.6%), 도시 야경 감상(30.5%), 야시장·전통시장(29.2%), 자연 야경 감상(25.7%) 순으로 확인됨
- 특히 '야간 산책'과 '야경 감상'이 상위에 위치한 점은, 야간관광이 활동 강도보다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과 시각적 만족도를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조명 연출, 보행로 정비, 야간 경관 디자인 등 도시 공간 차원의 야간관광 기반 조성이 중요함을 의미함
- 또한 식도락 관광과 야시장·전통시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야간관광이 단순한 경관 감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 및 로컬 콘텐츠와 결합된 체류형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3> 야간관광 시 주요 활동



야간관광 시 지출비용

- 당일여행의 경우 야간관광 지출액은 평균 약 7만원으로, 전체 여행경비의 4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숙박형 여행의 경우 야간관광 지출액은 평균 약 17만 8천원으로, 전체 여행경비의 51.6%에 달해 당일여행 대비 야간관광의 지출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남
- 이는 숙박을 동반한 체류형 관광일수록 야간 활동이 여행의 중심 축으로 작용하며, 야간관광이 체류 연장과 관광소비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1> 야간관광 시 지출비용

단위: 원, %

구분	총지출액	야간관광 지출	전체 여행경비 중 비중
당일 여행	165,858	70,528	42.5
숙박 여행	343,544	177,092	51.6

III. 김해시 야간관광 현황 및 문제 진단

1. 방문객 체류 특성 및 야간관광 실태²⁾

- 김해시는 연간 방문객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평균 체류시간과 숙박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 2025년 기준 김해시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의 81.6%가 당일 여행객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을 동반한 방문 비율은 18.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수치는 김해 관광이 여전히 경유형·단시간 방문 중심의 이용 행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며, 관광소비의 확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표2> 김해시 방문 내국인 관광객 여행 유형

구분	빈도	비율(%)
당일 여행	408	81.6
숙박 여행	92	18.4
합계	500	100.0

-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91.3%가 당일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 김해시가 내·외국인 모두에게 체류형 관광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표3> 김해시 방문 외국인 관광객 체류기간

구분	빈도	비율(%)
1일	264	91.3
2일	10	3.5
3일	3	1.0
4일 이상	12	4.2
합계	289	100.0

2) 김해연구원(2025), 김해시민 및 방문객 관광실태조사

2. 숙박 및 관광 소비의 역외 유출 구조³⁾

- 김해시는 숙박시설 수 자체는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으나, 관광 목적의 체험형·가족형 숙박 비중은 낮은 편으로 나타남
- 2025년 기준 김해시를 방문한 내국인 숙박 여행객의 숙박 유형을 살펴보면, '친구·친척집' 이용 비율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호텔·콘도 등 상업적 숙박시설 이용 비율은 22.9%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됨. 이는 김해 방문이 관광 목적보다는 사적 방문 또는 인접 도시 체류의 보조적 방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이로 인해 관광객 상당수가 부산·창원 등 인접 대도시에서 숙박하거나, 야간 시간대에 인접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4> 김해시 숙박 장소

구분	빈도	비율(%)
친구·친척집	39	42.4
호텔	19	20.7
콘도·리조트	2	2.2
펜션	2	2.2
민박·공유숙박	2	2.2
야영·오토캠핑	7	7.6
한옥(고택)	4	4.3
모텔·여관	17	18.5
기타	0	0.0
합계	92	100.0

3) 김해연구원(2025), 김해시민 및 방문객 관광실태조사

- 한편 김해시 방문 관광객이 숙박을 선택하지 않는 가장 주된 사유는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함. 이는 김해시가 여전히 당일 일정 내에서 소비되는 경유형 방문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관광 콘텐츠 전반이 체류 연장을 전제로 충분히 설계되지 못했음을 시사함
- 이어 '원하는 형태의 숙박시설 부족'(9.3%)과 '야간 관광 콘텐츠 부족'(8.7%)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숙박시설의 절대적 공급 부족보다는 관광객 수요에 부합하는 숙박 유형과 야간 체류를 유도할 콘텐츠 간 연계가 미흡한 구조적 미스매치가 존재함을 의미함

<표5> 김해시에서 숙박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	비율(%)
시간적 여유 부족	221	45.8
원하는 형태의 숙박시설 부족	45	9.3
야간 관광 콘텐츠 부족	42	8.7
관광지 인근 숙박시설 부족	4	0.8
숙박시설 서비스 부족	10	2.1
기타	161	33.3
합계	483	100.0

3. 야간관광 수용태세 및 이동 환경의 한계

- 한국관광데이터랩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해시 방문 관광객의 불편 요인으로 관광지 간 이동 불편, 야간 교통 연계 부족, 야간 안내·조명 부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김해시 관광 이동 수단은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야간 시간대 대중교통 및 관광 전용 교통수단의 활용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또한 야간 보행 환경, 조도, 안전 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이 미흡하여, 야간 관광 활동 확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4. 종합 진단

- 김해시는 방문객 규모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야간관광 콘텐츠 부족, 낮은 숙박률, 관광 소비의 역외 유출로 인해 관광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 내에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특정 콘텐츠의 부족에 기인한다기보다, 야간관광을 고려한 공간 구성, 상권 연계, 교통 체계, 수용태세 전반의 구조적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김해시는 국제공항 인접 도시이자 부산·창원 사이에 위치한 관문도시라는 점에서, 야간관광 부재는 곧바로 숙박·소비의 외부 이전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김해시 관광의 질적 전환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야간관광을 핵심 축으로 한 체류형 관광 구조로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김해시 관광정책 및 사업 설계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IV. 야간관광 활성화 기본 방향

1. 기본 인식

- 앞선 야간관광 실태 분석과 현황 진단 결과, 김해시는 방문객 규모에 비해 체류시간이 짧고 숙박률이 낮으며, 이로 인해 관광소비가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됨
- 특히 관광객의 비숙박 사유로 '시간적 여유 부족'과 '야간 관광 콘텐츠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점은, 김해시 관광의 한계가 개별 콘텐츠 부족보다는 야간 시간대 활용 미흡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함
- 이에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는 단순한 야간 볼거리 확충 차원이 아니라, 당일·경유형 관광 구조를 체류형·소비형 관광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즉, 야간관광은 선택적 보완 요소가 아닌, 체류 연장·숙박 유도·야간 소비 확대를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인식되어야 함

2. 기본 방향

체류 전환 중심의 야간관광 설계

- 실태 분석 결과, 야간관광은 당일여행에서도 전체 여행경비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며, 숙박형 여행에서는 그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남. 이는 야간관광이 체류 전환과 관광소비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임을 의미함
- 이에 야간관광은 단순한 야간 프로그램 제공이 아니라, 주간 관광 이후 자연스럽게 야간 활동으로 이어지고, 숙박 선택으로 연결되는 체류 구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김해시 야간관광 정책의 1차적 목표는 '야간 방문객 증가'가 아니라, 기존 방문객의 체류시간 연장과 숙박 선택 유도를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함

공간 집중형 야간관광 구조 전환

- 관광객 이동 불편과 분산된 콘텐츠 구조는 야간관광 확장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야간관광은 도시 전반에 산발적으로 확산하기보다, 체류 효과와 소비 집중도가 높은 거점 중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가야문화유산 밀집 지역, 원도심 상권 등 보행·체험·소비가 연계 가능한 공간을 중심으로 야간관광 거점을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적합함
- 이러한 공간 집중형 접근은 야간관광의 가시성, 이동 효율성, 체류 효과를 동시에 제고하는 기본 원칙으로 설정함

야간경제(NIGHT ECONOMY) 연계형 관광 활성화

- 김해시는 야간 시간대 관광소비가 인접 도시로 이전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는 관광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야간관광은 공연·체험 중심의 관광 정책을 넘어, 숙박·외식·상권 매출로 연결되는 야간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관광 콘텐츠, 로컬 상권, 숙박시설이 상호 연계·보완되는 구조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함으로써, 야간 시간대 관광 소비가 지역 내에 축적되는 구조적 전환을 도모함

V.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은 IV장에서 제시한 '체류 전환-공간 집중-야간경제 연계'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김해시 여건에 맞게 구체화한 실행 전략으로, 가야문화유산과 원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야간 체류와 소비가 집적되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전략 1. 가야문화유산 기반 핵심 야간관광 거점 조성

- 김해시 야간관광의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야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핵심 야간관광 거점 조성이 필요함. 이는 김해만의 고유 자산을 활용한 체류형 야간관광 구축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를 가짐
-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 역사·문화 자산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경관 연출, 해설 프로그램, 야간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주간 관람 중심의 유산 활용 구조를 야간 체험형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김해 고유의 야간관광 정체성을 구축하고, 야간 시간대에도 방문 동기가 유지되는 체류 구조를 형성함

전략 2. 원도심·로컬 상권 연계형 야간관광 활성화

- 전략 1이 야간 체류의 방문 동기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전략이라면, 전략 2는 야간 체류가 실질적인 소비로 전환되도록 하는 핵심 연결 전략임
- 관광소비의 역외 유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야간관광 콘텐츠가 원도심·로컬 상권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구조 마련이 필요함
- 봉황대, 회현동, 내외동 등 기존 상권을 중심으로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 공연, 야간 마켓, 체험형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야간 소비가 자연스럽게 상권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권 연계형 야간관광은 대규모 시설 투자보다, 기존 공간과 상인의 참여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적합함

전략 3. 야간관광 수용태세 및 이동 환경 개선

- 야간 교통·보행·안전 환경은 야간관광 활성화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주요 야간관광 동선을 중심으로 조도 개선,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 안전 시설 확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야간 관광 활동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광지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야간 시간대 관광객 이동을 고려한 교통 연계 방안 검토가 요구됨
- 이러한 수용태세 개선은 단기 시설 보완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성과 관리와 정책 환류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보완될 필요가 있음

전략 4. 단계적·데이터 기반 야간관광 정책 추진

- 야간경제 연계형 관광 활성화가 단기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김해시 야간관광 정책은 단기 이벤트 중심이 아닌, 단계적 확대와 성과 관리가 가능한 중장기 전략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관광객 체류시간, 숙박률, 야간 상권 매출 등 핵심 지표를 활용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정책 개선 구조를 마련함
- 이를 통해 야간관광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김해 관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함

VI. 정책 제언 및 맷음말

1. 정책 제언

-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는 개별 콘텐츠 확대에 그치지 않고, 관광 구조를 당일·경유형에서 체류형·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공간, 상권, 수용태세, 운영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단계적 정책 추진이 요구됨

야간관광 거점 중심의 공간·상권 통합 운영체계 구축

- 김해천문대, 가야문화유산, 원도심 로컬 상권 등 야간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관광 거점을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분산된 개별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 동선-콘텐츠-상권이 연계되는 공간 단위의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김해형 야간관광 브랜드(BI) 및 홍보·마케팅 체계 정비

- 김해의 야간관광 자산을 체계적으로 인식·확산하기 위해, 야간 경관 및 상권을 중심으로 한 김해형 야간관광 브랜드(BI) 구축이 필요함
- 야간관광 브랜드는 홍보 수단이 아니라, 김해시의 야간 체류 동선과 소비 구조를 인식시키는 정책적 프레임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브랜드 구축은 단일 이벤트 중심이 아닌, 계절형·주제형 야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적하여 상설 야간 콘텐츠 정착으로 이어지는 중장기 운영 전략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김해천문대를 김해시의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핵심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이 필요함

숙박·상권·문화콘텐츠 연계형 야간경제(NIGHT ECONOMY) 구축

- 야간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 내에 축적하기 위해, 숙박·외식·상권 매출로 연결되는 야간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장유·내외·봉황대길 등을 중심으로 야간 중심 상권 육성구역을 설정하고, 상권 친화형 야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문화유산 애행에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이나 상설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상설 운영으로 야간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무장애·안전·친환경 중심의 야간 수용태세 선진화

-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행환경 조도 기준, 무장애 동선, CCTV·비상벨 설치 등 야간 안전 인프라의 표준화가 필요함
- 성곽·고분군, 로컬 상권 등 주요 야간 동선에 대해 조도 개선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및 정책 환류 체계 구축

- 야간관광의 실질적 성과 관리 및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체류시간, 야간 상권 매출, 숙박률, 방문객 유입 변화 등을 포함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함
- 한국관광데이터랩, 카드 매출 빅데이터, 이동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환류하는 체계 마련이 요구됨
- 아울러 문화유산 애행 등 야간 콘텐츠 관련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맷음말

- 김해시는 풍부한 역사문화유산과 생태 자원, 우수한 광역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체류율과 야간관광 부족으로 인해 관광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해 온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본 정책브리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야간관광을 매개로 관광 구조를 체류형·고부가 가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시하였음
- 특히 야간관광은 관광객 체류 연장과 숙박·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관광 콘텐츠 차원을 넘어 공간 운영, 상권 활성화, 수용태세 개선 등 도시 기능 전반과 연계된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 향후 김해시 야간관광 정책은 단기 이벤트 중심의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공간·상권·수용태세·운영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김해시가 경유형 관광지의 한계를 넘어, 머무르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지막으로 야간관광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미 방문한 관광객을 '머무르게 만드는' 김해시 관광 전환 전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김해정책 BRIEF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김재원

집필자 최나리 문화관광복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양봉석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호텔관광경영과 교수

발행처 김해연구원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지니스센터 2층

연락처 (055) 344-7700

편집 디자인 봄

- 김해연구원 집필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간행물의 내용은 전적으로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김해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